

‘기적·헌정사상 최초·세계로 우뚝’ 지역민 손으로 해냈다

●2022년 광주·전남 10대 뉴스-明(1-5)

임인년(壬寅年) 끝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한 해 동안 광주·전남엔 지역민을 울게 한 사고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기념적인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본보는 2022년 광주·전남 10대 뉴스 가운데 밝은 소식과 어두운 소식을 나눠 명과 암을 선정,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1고려인 동포 무사 귀환 ‘기적’ 만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름에 빠진 고려인마을을 위해 나선 지역민의 노력은 고려인 동포 ‘무사 귀환’이란 기적을 만들었다.

당시 고려인 동포들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해도 조상의 땅 입국이 여의치 않았다. 갑작스레 피란 길에 오른 탓에 항공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등을 챙기지 못해서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모금운동에 동참하며 항공비를 지원했고 법무부·외교부 등은 입국길을 열었다.

그 결과 이달 초 기준 861명의 우크라 탈출 고려인 동포가 항공편을 지원받았다. 또 대기자도 200여명으로 추산돼 고려인마을과 지역사회는 이들이 무사 입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마을과 지역사회는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금전적 지원 등을 물심양면으로 이어오고 있다.

2헌정사상 최초 ‘님 행진곡’ 여야 함께 불러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은 지난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이날 기념식에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지난 6월 21일 오후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우주로 향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 100여명도 참석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밝히 지역민의 마음엔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자리했다.

또 지난 8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월 단체의 숙원 해소도 한발자국 가까워졌다.

개정안이 정부 이승 후 공포되면 보상을 받지 못한 관련자들은 신청을 통해 수급이 가능하다.

또 재분류 심사를 통한 등급 상승길도 열렸다.

이밖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선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신설돼, 오월 단체들은 진행되고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속도가 붙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3누리호 발사 성공…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지난 6월21일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무게 1t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누리호는 발사 16여분만에 모든 비행절차를 마쳤다. 성공여부 판별까진 ‘위성 안착’만 남아 고흥우주센터 관계자들은 항공우주연구원의 발표에 촉각을 기울였다. 잠시 뒤 오후 5시10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누리호 발사 성공이 공식 확인됐다.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항공우주연구원은 2027년까지 총 6천874억원을 들여 누리호 발사체 4기를 반복 제작, 발사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4압도적 성적 광주FC 1부리그 승격

광주 FC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25승 11무 4패(승점 86점)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지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지난 4월23일 이후로 한변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광주FC는 올 한 해 동안 ▲K리그2 역사상 최단 기간 우승 ▲K리그2 최다 승점 ▲시도민 구단 홈 최단연승 등 다양한 업적을 달성했다.

또 지난 10월 ‘하나원큐 K리그 2022 대상 시상식’에서 광주FC는 K리그2 감독상·영플레이어상 등의 영예를 안았다.

한 시즌만에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당당히 K리그1에 복귀한 광주FC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1차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팀워크와 조직력 향상, 전술 훈련에 중점을 맞춘 훈련을 통해 광주FC는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며 내년 무대에서도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512년만의 원정 16강…지역민 ‘활짝’

12년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은 지역민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월드컵 기간 동안 광주·전남에서 대규모 거리응원은 펼쳐지지 않았지만, 지역민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한마음 한 뜻’으로 선수들을 응원했다.

비록 세계 1위와 다른 16강전에서 패배하며 카타르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선수들의 투혼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태극전사들을 보며 자기 역시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이들도 있었다.

가나전에서 아낌없이 기량을 발휘하며 멀티골을 터뜨린 조규성 선수의 모교 광주대학교 후배들은 매 경기마다 선배의 활약을 응원하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펼 그 날을 기약했다. /연재영기자

‘맞춤양복 뇌물’ 논란 이상익 함평군수 검찰 송치

‘3천만원 수수 의혹’ 배우자·전 비서실장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맞춤 양복 여러 벌을 뇌물로 받았다는 논란을 빚은 이상익 함평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총 1천만원가량인 맞춤 양복 5벌 값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이 군수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이 군수를 소개하고 1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입은 혐의(알선수제)로 입건된 중개인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건설업체 관계자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부를 수주하기 위해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

서실장이 다른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이 군수 배우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입건된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인 등은 검찰에 송치했다. /오복기자

검찰, “박정희 비판” 계엄법 위반 변호사 직권 재심청구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처벌받은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민 부장검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1974년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이모(당시 56세·1997

년 사망)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였던 이씨는 1969-1973년 다방, 사모임 등에서 “박정희는 합법 정부를 탈취한 강도, 사기꾼이다. 권총을 가지고 정권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4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올해 8월 이씨의 아들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고 조사에 들어갔 다. /오복기자

유덕 톨게이트서 승용차 미끄러져 뒤집혀…운전자 경상



20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 유덕 톨게이트(수완지구에서 공항 방향)에서 A(4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1차로를 달리던 A씨가 톨게이트를 앞두고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톨게이트 1차로 입구 기둥과 벽에 부딪혔다.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차량 뒤쪽이 들리면서 톨게이트 1차로 입구를 옆으로 막아선 채로 뒤집혔다.

1차로에서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는 다행히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화를 면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차로 진입이 통제되면서 1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지만,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 /곡성=이호산기자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출근 중이던 A씨가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재영기자

1t 냉동탑차에 치인 70대 숨져

곡성의 한 도로에서 달려오던 1t 냉동탑차에 행인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곡성을 편도 2차선 1차로에서 길을 지나던 A(77)씨가 B(45)씨가 몰던 1t 냉동탑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이호산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지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